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영향요인

문인오¹, 정지나^{2*}, 서명희³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¹,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조교수²,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³

Learning Strategies Influencing factor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Inn Oh Moon¹, Ji-Na Jeong^{2*}, Myoung Hee Seo³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Division of Health Management, Jeonj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Assistan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J도 소재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보건 의료분야 전공 대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 전략은 진학동기,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년, 진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전략과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r=.478, p<.001$), 자기주도적 학습($r=.645, p<.001$), 학업 스트레스($r=-.193, p<.001$)로 유의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beta=0.61$), 전공만족도(만족)($\beta=0.31$), 전공만족도(보통)($\beta=0.24$)의 순으로 학습전략에 영향을 주며, 전체 설명력은 42.6%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공만족도 개선방안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방안의 모색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전략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보건계열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strategie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to 373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nd health care at two universities in J.do.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rning strategies depending on Motive of application and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with the grade, gender, Motive of applicati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i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depending on the grade, motive of application, and major satisfaction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self-efficacy($r=.478, p<.001$) and self-directed learning($r=.645, p<.001$), academic stress($r=-.193, p<.001$). Self-directed learning($\beta=0.6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beta=0.31$), and major satisfaction (usually)($\beta=0.24$) affect the learning strategy, with 42.6% overall expla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earch for ways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levels and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the learning strategy of college students in the health sector.

Key Words :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This research was financial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Ji-Na Jeong(naji2004@jj.ac.kr)

Received April 5, 2019

Revised May 1, 2019

Accepted May 20,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12월 2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고등교육기관(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3만 7,899명으로 취업대상자 51만 55명의 66.2%에 그쳤으며, 전년 대비 취업률이 1.5% 감소하였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의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취업률을 고려하게 되고, 자신의 호기심이나 관심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계열의 학과를 주변인들로부터 추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전공학과를 선택한 일부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적응은 전공수업에 대한 흥미결여로 학업 부진 발생, 중도 탈락율 증가, 더 나아가서는 취업 후의 잦은 이직 등과 같이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1].

대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의 원인을 파악한 선행연구 결과 중 인문사회계열이나 공업계열보다는 보건, 가정, 체육 계열 학생들에서 중도 탈락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중도탈락 의도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낮은 학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 특히 보건계열의 경우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하게 될 현상이 국민의 의료 및 건강에 관련된 곳이므로 대학 교육에 있어서 높은 학업 성취도 및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3]. 그러므로 보건계열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달성이 어느 계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학업 성취도 달성을 위해서는 학습전략이 중요한데[4], 학습전략이란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위해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학습자가 학습하고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과정, 정신적 활동 및 행동을 의미하며, 학습성과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학습전략은 인지전략, 메타인지, 자원관리로 분류될 수 있으며[5], 이 중 메타인지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메타인지란 인지과정의 구조화를 통한 자신의 인지에 대한 반성적 정신작용으로[6], 학습 시 학습자 스스로 개인의 인지과정을 이해하고 사고와 문제해결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7].

한편,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생 신분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요인들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8],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련 문헌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 중 전공공부와 전공 외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9]. 이와 관련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으로 확인된 선행연구[10]가 있는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정의된다[11].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12],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적인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능력으로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학습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계획, 실행, 평가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학습을 말한다[14].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수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교과목 내에서 사례기반학습법(case-based learning)을 활용[15]하거나, 학습자 질문 중심 교수법 시도[16], 블렌디드 액션러닝(blended action learning) 프로그램 적용[17], 문제중심 학습연계 교육(Problem-based learning) 프로그램 적용[18]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들은 결국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수행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학습 전략이 요구되며,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만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생의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전략,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루어졌다. 표본크기 산출을 위해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Cohen[19]이 제시한 다중회귀분석 검증 시 효과크기 기준을 적용해 작은 효과크기(effect size)의 0.07, 유의수준 .05, 검정력 .99, 예측변수 3개(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를 설정했을 때 최소 340명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탈락율 10%을 고려한 설문지 385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379(9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총 373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전략

학습전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Como와 Mandinach[20]가 개발한 도구를 박수영[5]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전략 14문항, 메타인지전략 17문항, 지원관리전략 15문항, 총 3개요인 4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학습전략 활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수영[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2 학업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오미향과 천성문[21]이 개발한 도구를 이은수[2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만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스트레스의 7문항을 제외하였으며, 학습과 관련된 성적스트레스 7문항, 시험스트레스 8문항, 수업스트레스 11문항, 공부스트레스 9문항 총 4개요인 3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스트레스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수[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23]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수준선호 10문항의 총 3개요인 28문항의 6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2이었다.

2.3.4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석재 등[14]이 개발한 대학생 및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계획 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 총 3개요인 4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자주' 5점에서 '매우 드물게'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석재 등(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학습전략,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전략,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정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추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실시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고,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인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전공은 간호학과 (47.5%)가 가장 많았고, 보건관리학과 (18.8%), 작업치료학과 (10.5%), 방사선과(14.2%), 물리치료학과(9.1%) 순이었다. 대상자 중 2학년이 가장 많았고(35.4%), 4학년(25.7%), 3학년(24.1%), 1학년(14.7%) 순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64±3.56세였으며, 여성이 76.4%(285명)로 더 많았다. 진학 동기는 '주변사람의 권유'가 43.7%로 가장 많았고,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31.9%,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인 경우가 24.4%였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60.2%로 많았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s (N=3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Major	Nursing	117(47.5)
	Occupational Therapy	39(10.5)
	Health Management	70(18.8)
	Physical Therapy	34(9.1)
	Radiology	53(14.2)
Grade	1	55(14.7)
	2	132(35.4)
	3	90(24.1)
	4	96(25.7)
Age		21.64±3.56
Gender	Male	88(23.6)
	Female	285(76.4)
Motivation for application	Suit one's aptitude and taste	91(24.4)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119(31.9)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	163(43.7)
Major satisfaction	High	134(36.0)
	Moderate	224(60.2)
	Low	14(3.8)

3.2. 대상자의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

대상자의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학습전략은 5점 만점에 3.33±0.39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전략은 3.49±0.51점, 자원관리는 3.36±0.39점, 메타인지는 3.17±0.47점 순이었다. 학업 스트레스는 3.30±0.48점이었고, 하부영역에서는 수업 스트레스 3.40±0.44점, 시험스트레스 3.39±0.48점, 공부 스트레스 3.36±0.48점, 성적 스트레스 3.06±0.58점 순이었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3.67±0.50점이었고, 하부영역은 자기조절 효능감이 3.92±0.68점, 자신감 3.72±0.99점, 과제 난이도 선호 3.39±0.58점 순이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5점만점에 3.32±0.45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습계획은 3.15±0.55점, 학습실행이 3.51±0.47점, 학습평가는 3.36±0.56점 이었다(Table 2 참고).

Table 2. The Degree of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M±SD	Min~Max
Learning Strategies	3.33±0.39	2.07~4.63
Cognitive strategies	3.49±0.51	2.07~5.00
Meta-cognitive	3.17±0.47	1.76~5.29
Resource management	3.36±0.39	1.93~4.60
Academic Stress	2.75±0.48	1.11~4.17
Grade stress	3.06±0.58	1.43~5.00
Test stress	3.39±0.48	1.63~4.75
Class stress	3.40±0.44	1.45~7.09
Studying stress	3.36±0.48	2.00~4.78
Academic Self-efficacy	3.67±0.50	1.89~5.14
Task difficulty preference	3.39±0.58	1.90~5.40
Self-regulating efficacy	3.92±0.68	1.50~5.90
Confidence	3.72±0.99	1.00~6.00
Self-directed Learning	3.32±0.45	1.93~5.31
Learning plan	3.15±0.55	1.35~6.35
Desire to learn	3.13±0.60	1.20~8.20
Target settings	3.28±0.82	1.00~5.00
Identify resource	3.06±0.71	1.00~5.00
Learning execution	3.51±0.47	2.40~4.80
Self-management	3.61±0.60	1.80~5.00
Select strategies	3.35±0.59	1.20~5.00
Execution connected	3.56±0.62	2.00~5.00
Learning evaluation	3.36±0.56	1.70~5.00
Result attribute	3.54±0.63	1.20~5.00
Self-examination	3.17±0.69	1.00~5.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학습 전략은 학년,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진학동기(F=5.20, p=.006), 전공 만족도(F=20.19,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진학동기가 주변사람의 권유인 경우에 비해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진학한 경우, 그리고 전공에 대해 만족인 경우가 보통 및 불만족인 경우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학년(F=8.98, p<.001), 성별(t=-2.94, p=.004), 진학동기(F=3.41, p=.034), 전공 만족도(F=17.93,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분석 결과 3,4학년에 비해 2학년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진학동기가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인 경우에 비해 취업률과 주변사람권유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에 비해 보통이하인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

적 자기 효능감은 학년(F=5.98, p=.001), 진학동기(F=4.56, p=.011), 전공만족도(F=22.3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2학년에 비해 4학년이, 진학동기가 주변사람 권유인 경우에 비해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인 경우, 전공 만족도가 보통 및 불만족인 경우에 비해 만족인 경우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전공(F=2.98, p=.019), 학년(F=4.62, p=.003), 진학동기(F=7.53, p=.001), 전공 만족도(F=23.32,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작업치료학과와 방사선과에 비해 간호학과가, 2학년에 비해 4학년이, 진학동기가 취업률이나 주변사람 권유인 경우에 비해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보통, 불만족인 경우에 비해 만족인 경우에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of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ajor								
Nursing	3.32±0.39		2.79±0.48		3.73±0.52		3.39±0.47	
Occupational Therapy	3.34±0.33		2.80±0.52		3.60±0.52		3.16±0.40	2.98
Health Management	3.32±0.41	0.53 (.714)	2.73±0.53	1.01 (.400)	3.62±0.50	1.02 (.399)	3.30±0.45	(.019) a>b,e
Physical Therapy	3.30±0.38		2.66±0.35		3.65±0.48		3.25±0.37	
Radiology	3.40±0.43		2.67±0.49		3.65±0.47		3.25±0.45	
Grade								
1st ^a	3.35±0.46		2.75±0.58		3.69±0.64		3.38±0.51	
2nd ^b	3.32±0.36	0.33 (.804)	2.90±0.46	8.98 (<.001)	3.56±0.45	5.98 (.001)	3.24±0.39	4.62 (.003)
3rd ^c	3.30±0.38		2.70±0.42	b>c,d	3.66±0.47	b<d	3.26±0.42	b<d
4th ^d	3.35±0.39		2.59±0.46		3.84±0.48		3.44±0.51	
Gender								
Male	3.38±0.43	1.38 (.167)	2.62±0.53	-2.94 (.004)	3.70±0.53	0.60 (.551)	3.24±0.48	-1.70 (.090)
Female	3.31±0.38		2.79±0.46		3.67±0.50		3.34±0.45	
Motive of application								
Suit one's aptitude and taste ^a	3.44±0.41		2.64±0.49		3.81±0.58		3.47±0.46	
The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b	3.32±0.39	5.20 (.006) a>c	2.79±0.46	3.41 (.034) a<b,c	3.64±0.47	4.56 (.011) a>c	3.28±0.43	7.53 (.001) a>b,c
The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c	3.27±0.37		2.78±0.49		3.62±0.47		3.26±0.45	
Major satisfaction								
High ^a	3.48±0.40	20.19 (<.001)	2.57±0.49	17.93 (<.001)	3.89±0.55	22.36 (<.001)	3.52±0.47	23.32 (<.001)
Moderate ^b	3.26±0.35	a>b,c	2.84±0.44	a<b,c	3.57±0.41	a>b,c	3.21±0.37	a>b,c
Low ^c	3.01±0.52		3.08±0.49		3.30±0.69		3.10±0.75	

3.4 대상자의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습전략,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학습전략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r=.478, p<.001$)과 자기주도적 학습($r=.645, p<.001$)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r=-.193,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r=-.543, p<.001$)과 자기주도적 학습($r=-.365,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자기주도적 학습($r=.64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s among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Strategies	-			
Academic Stress	-.193** (<.001)	-		
Academic Self-efficacy	.478** (<.001)	-.543** (<.001)	-	
Self-directed Learning	.645** (<.001)	-.365** (<.001)	.647** (<.001)	-

3.5 대상자의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상자의 진학동기, 전공 만족도,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을 변수로 포함하여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77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126~6.987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beta=0.61$), 전공만족도(만족)($\beta=0.31$), 전공만족도(보통)($\beta=0.24$)의 순

으로 학습전략에 영향을 주며, 전체 설명력은 42.6%였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을수록($B=.526$),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에 비해 만족이($B=0.250$),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에 비해 보통($B=0.190$) 일수록 학습전략이 더 높았다 (Table 5 참고).

Table 5. Factors affecting Learning Strategies

	β	t	sig.	VIF	R^2	Adjusted R^2	F (p)
constant		10.13	<.001				
Self-directed Learning	.61	14.66	<.001	1.126			92.
Major satisfaction (High)	.31	2.96	.003	6.987	.431	.426	846 (<.001)
Major satisfaction (Moderate)	.24	2.33	.020	6.781			

Durbin Watson = 1.77

4. 논의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학습전략 점수는 3.3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부 요인 중에서는 인지전략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메타인지는 3.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메타인지 수준이었던 3.33점보다는 낮은 점수였다[24]. 인지전략과 메타인지 전략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5]에 따라 점수가 낮은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질문방법[25, 26], 구조화된 인지적 성찰일지방법[27] 등이 메타인지전략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암기위주의 학습을 넘어서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다. 즉,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루어 나가야만 메타인지 전략 중심의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 학업스트레스가 3, 4학년에 비해 2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

런 문헌 분석 연구[9]에 의하면 각 연구들마다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논문의 수를 보면 6학년 2편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가 더 많았다. 간호학과와 관련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이라는 시점에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주로 2학년 때부터 전공과목 수강이 시작되는 점과 관련된다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서 1학년도 2학년 못지않게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및 교수자는 신입생 때부터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와는 다른 학습전략이 필요한 대학과정으로의 이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입생인 1학년과 전공과목이 시작되는 2학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다루고 있는 학습전략,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모두 진학동기에서 자신의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즉 자신이 원해서 학과에 지원한 경우가 주변 사람 권유로인 타인에 의해서 또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라는 현실적인 동기에 의해 진학한 경우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가 메타인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6]로도 설명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공 만족도의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또는 불만족에 비해 학습전략,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학습자 자신의 내적 동기부여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전공 만족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도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만족이라는 응답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정에 의한 진학동기가 아닌 학생들 및 학과 만족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는 학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학년에 비해 4학년이 유의하게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높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보였다는 결과들[28]과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은 3.32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측정되

었는데 하부 영역인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중에서는 학습계획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다양한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연구 결과들[29]과도 유사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지라도 어느 부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개발해줄 것인지에 대한 시점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될 때 학습 실행은 어느 정도 일어나며, 그 실행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학습을 처음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에 대한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실제적인 학습 계획 방법에 대한 코칭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점수는 2.75점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하부영역에서는 성적 스트레스가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한 선행연구[33]와도 유사한 결과로 대학생들 중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재학 중 성적이 국가고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고, 취업 시 매우 중요한 스펙이 되므로 성적을 포함한 학업부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결국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학과차원의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3.67점이었으며, 하부영역에서는 과제수준 선호영역이 3.3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34]에서 연구결과를 총점으로 제시하여 평균값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나 실패에 도전하는 과제들보다는 주어진 학습내용을 성실하게 반복하고 수행하는 학업패턴으로 인해 과제수준의 난이도에 따른 학업 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저학년때 부터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학습 태도를 길러주고,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접근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취하게 하는 수업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상자들의 학습 전략과 학업스트레스,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유

의수준 내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이었다. 이는 학습전략 중 하나인 메타인지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직접 효과가 있으며, 메타인지가 학업성취에 대하여 직, 간접 효과가 있다는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6].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인 학업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전략이 필요한데, 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본 연구결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었으므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중 학습 계획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 자기주도적 학습과 더불어 예측요인으로 전공만족도가 설명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은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학과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즉,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 및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을 뜻하는데[31], 자신의 진학동기와 만족도가 관련이 높다고 판단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자신의 진학동기가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32],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측면의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및 학생들에게 비전 제시, 학과의 체계적인 운영, 면학 분위기 조성, 전공분야에 대한 긍정적 진로탐색에 기회부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올려줌으로써 학습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계열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결과 학습전략에 자기주도적 학습과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전략 중에서는 메타인지전략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중에서는 학습 계획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전략에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과의 관리방안도 필요하다.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메타인지 전략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개발을 위해 학습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코칭 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과의 개선방안 및 사례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 Lee & H. Jeon. (2015).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861-8869.
- [2] K. S. Choi. (2010).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decide dropout. *Korean Business Review*, 3(1), 96-118.
- [3] T. H. Kim, O. T. Yoon & Y Kim. (2011). A Study on the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1), 39-47.
- [4] H. J Park. (2005).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student achieve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1), 203-222.
- [5] S. Y. Park.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ing strategies,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and learning outcome in cyber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6] J. H. Lee. (2010).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 [7] J. S. Lee.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26(2), 277-295.
- [8] K. H. Yoo. (2018).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3), 269-278.
- [9] J. K. Kim. (2014).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47-59.
- [10] E. J. Yoo, S. K. Kim & S. H. Juong. (2013). A Study on stress of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mong students from beauty-related colleg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9), 279-287.
- [11]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12]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59-566.
- [13] M. J. Sim & H. S. Oh. (2012).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6), 328-337.
- [14] S.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4p.
- [15] J. A. Kim. (2017). Effect of case-based learning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r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in a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3), 259-270.
- [16] Y. Ahn & S. Hwang. (2015). Lesson with students generated questions: Based on a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66-275.
- [17] Y. C. Kim & E. C. Lee. (2015). An effect of blended action learning program on the self directed learning skill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658-671.
- [18] O. H. Cho & K. H. Hwang. (2016). The Effect of education based on simulation with problem-based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7), 640-650.
- [19] J. Cohen.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20] L. Como & E. B. Mandinach. (1983). The role of cognitive engagement in learning from instru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18, 88-108.
- [21] M. H. Oh & S. M. Chum. (1994).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Human Understanding*, 15, 63-69.
- [22] E. S.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learning str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23] A. Y. Kim & E. Y. Park.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reasonablization of academic self-effectiveness scale. *The J of Edu Research*, 39(1), 95-123.
- [24] J. R. Han & J. M.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in college students in healthcare fiel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273-282.
- [25] E. J. Lee.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care support of working mothers and non-working mo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 [26] O. H. Cho, K. H. Hwang & Y. S. Yoo. (2016). The impact of career-focused nurses' ego-resilience and career planning on turnover inten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4(3), 284-291.
- [27] S. H. Park, S. K. Lee & M. N. Choi. (2008). A study on effects of well-structured cognitive reflection journal on meta-cognition and learning achievement.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1, 5-13.
- [28] W. O. Oh. (2002).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5), 684-693.
- [29] J. W. Park & K. S. Bang. (2010). Learn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7(1), 36-42.
- [30] J. Y. Ha. (2011). Learning styl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55-364.
- [31]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32] Y. J. Song & G. P. Cho.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12(34), 61-77.
- [33] Y. K. Lee. (2015). The difference between undergraduates' academic stress on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cademic emo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34] M. J. Sim & H. S. Oh. (2012).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2(6), 328-338.

문 인 오 (Inn-Oh Moon)

[상화]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0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비즈니스마케팅,

간호인적자원관리

· E-Mail : mio@wu.ac.kr

정 지 나(Ji Na Jeong)

[정회원]



- 1989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4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보건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의무기록정보관

리, 보건정책, 보건교육

· E-Mail : naji2004r@jj.ac.kr

서 명 희(Myoung Hee Seo)

[정회원]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 관리, 지역사회 간호,

· E-Mail : seomh@jvision.ac.krr